전문대 수시 21만3484명 선발

144개 대학 입학전형 … 전체 모집 인원의 76.7%

9월8일부터 원서접수

2011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144개 대학이 총 21만3484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관련기사 13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29일 각 대학의 2011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해 발표하고 9월8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12월7일까지 전형을 해 12월12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대 수시모집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대 입학정보센(http : //ipsi.kcce.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은 총 21만3484명으로 정시까지 포함한 올해 전체 모집인원(27만8천443명)의 76.7%를 차지한다. 정원 내 모집인원이 17만3천293명, 정원 외 4만191명이다. 전형별로는 정원 내 일반전형으로 8만2천205명, 특별전형으로 9만1천8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실기 등이 주요 전형요소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대학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한다. 일반전형을 하는 129개교 모두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이중 104개교는 학생부만으로, 1개교(경남도립남해대)는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137개교 가운데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97개교로 가장 많고 영진전문대, 웅지세무대, 재능대 등 13개교는 학생부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수능은 거제대, 광주보건대, 김천과학대 등 19개 대 일부학과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한다.

원서접수는 9월8일부터 시작해 대학별로 12월7일까지 전형을 진행하게 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12일까지이며 합격자 등록기간은 12월13~15일이다.

특히 대학별로 제각각이던 대입 지원서 양식이 이번 수시모집부터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시모집 기간에는 전문대학 간 복수지원은 물론 일반대학(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과 전문대학 간 지원도 가능하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연합뉴스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의 청동기 시대 지석묘 3기가 기존 위치에서 2~7m 가량 밀려난 채로 방치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청동기 지석묘 뒤집히고 밀려나고

영광 산업단지 조성 과정 … 도굴 가능성도

영광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지석묘(돌무덤)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에 위치한 50㎡ 부지의 지석묘 3기가 뒤집히거나 기존 위치에서 2~7m 가량 밀려나는 등 크게 훼손됐다.

이 지석묘는 지난 2008년 8월 대마산단 개발 사업에 앞서 실시된 문화유적 지표 조사 당시 발견된 것으로,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발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석묘 발굴을 위해 현장을 찾은 동북아지석묘연구팀은 지석묘 훼손 현장을 발견하고 군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날 송죽리 현장에는 가로 2.2m, 세로 1.7m, 높이 1m, 무게 4t 가량의 지석묘 1기가 완전히 뒤집힌 채로 방치돼 있었다. 또 무게 2~3t으로 추정되는 지석묘 2개도 각각 원래 놓여있던 장소에서 각각 2m, 7m 가량 밀려나 있어 도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도굴 가능성은 물론, 일반인에 의한 단순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광주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상수도본부 정수장·수도관 등 검사 적합 판정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문인)는 29일 7월 중 정수장 4개소와 수도관노후지역 8개소, 일반수도꼭지 130개소(동구 14·서구 27·남구 22·북구 42·광산구 25)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4개 정수장(용연·덕남·지원·각화)은 먹는물수질기준 57개 검사항목 중 납 등 중금속·페놀 등 유해물질, 벤젠 등 휘발성 유기물질 등 37개 항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질산성질소, 소독 후 생성되는 총트리할로메탄 등 20개 항목은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탁도는 0.049~0.053 NTU(기준은 0.5 이하), 총트리할로메탄은 0.016~0.019㎎/L(기준 0.1 이하), 클로로포름은 0.008~0.011㎎/L(기준 0.08 이하)로 기준치보다 낮았다.

또 정수장 노후수도관 파악을 위한 10개 항목 검사결과 철·일반세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급수관 영향물질인 아연은 0.002~0.019㎎/L(기준 1.0 이하)로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우수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교수' 채용

최장 5년까지 임용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이 우수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해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의 하나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교원의 범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신설한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5년으로 한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게 된다.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전임강사 이상이면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교육공무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까지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이 아닌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

중상사고 60대, 배상보험 한도 부족 법정구속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이 제대로 된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29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6)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배상한도가 존재하는 만큼 치료비와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자동차와 같이 교특법 4조에 따라 전액 보장 보험에 가입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신모(여·58)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신씨는 앞으로 넘어져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최씨가 가입하고 있던 '스포츠 공제 보험'은 생활체육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다치면 2천만원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상품이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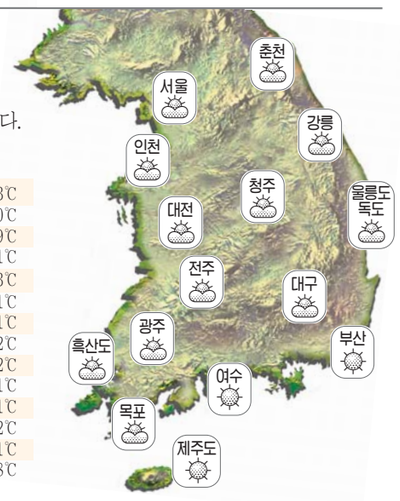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0분 / 해짐 19시 38분 — 달뜸 21시 29분 / 달짐 09시 18분

출근길 운전 조심

아침에 안개끼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4/33℃
목 포	구름많음	23/30℃
여 수	구름조금	24/29℃
완 도	구름많음	24/31℃
구 례	구름많음	24/33℃
해 남	구름많음	24/31℃
장 흥	구름많음	24/31℃
고 흥	구름조금	23/32℃
순 천	구름많음	24/32℃
영 광	구름많음	24/31℃
진 도	구름많음	24/31℃
전 주	구름많음	24/32℃
남 원	구름많음	23/31℃
흑산도	구름많음	22/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0~2.0m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 식중독지수 경고 / 불쾌지수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4:36 16:47	09:50 21:55
여수	11:11 23:29	05:12 17: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1(토)	1(일)	2(월)	3(화)	4(수)	5(목)
날 씨						
최저/최고	25/33	25/33	26/33	25/33	26/33	24/31

헌재 "'침뜸 한의사만' 의료법 합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못미쳐 결과적으로 합헌이 됐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9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5) 옹이 이끄는 단체인 뜸사랑의 간부로 1천여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입수하다 충돌사고 수영장측 30% 책임

수영장에서 입수하다 충돌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 측에 70%, 수영장 측에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나모(여·61)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